

제 1 교시

# 예열 자료

출수형

- 해당 자료는 시험 당일 40분 정도 공부할 것을 가정하고 제작 하였습니다.
  - ⇒ 감독관에 따라 08시 10분부터 학습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07시 30분부터는 해당 자료로 학습을 시작하실 것을 권합니다.
    - 이때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곧 시작될 시험에서 '나는 이렇게 읽고 풀 것이다.'를 상기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 ⇒ 더불어, 해당 자료 외에 추가적인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영역별로 1~2지문 정도씩 더 챙겨서 시험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한다.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의 양과 관련된다. 즉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 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 버린 격차를 극복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매튜 효과란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 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며,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읽기 흥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 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가령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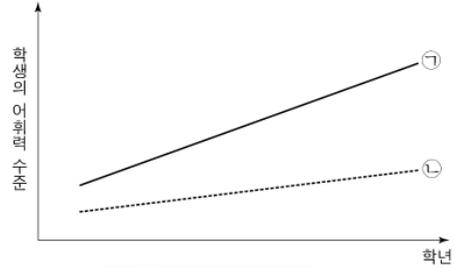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
- ②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추수록 더 잘 읽게 된다.
- ③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 ④ 읽기 요소는 다른 읽기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⑤ 읽기 연구에서 매튜 효과는 읽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2.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매튜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A]를 바탕으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읽기 양이 적지만 어휘력은 더 큰 폭으로 높아진다.
- ② ㉡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의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 ③ ㉡은 학년이 올라가면 ㉠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지능의 차이 때문이다.
- ⑤ ㉠과 ㉡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3. <보기>의 관점에서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 ① 읽기 발달의 속도는 한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
- ② 읽기 발달은 읽기 속도나 취향 등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르다.
- ③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은 타고난 개인적 성향으로서 변하지 않는다.
- ④ 읽기 발달은 개인의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⑤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혼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른다.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단위체들은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 한다.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 결합이라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 결합이라 한다.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여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에틸렌은 두 개의 탄소 원자와 네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

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과산화물 개시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개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며,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면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된다. ㉡이 중합 과정을 거쳐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지지만,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며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 이런 성질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8.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위체들은 중합을 거쳐 거대 분자를 이룰 수 있다.
- ② 에틸렌 분자에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모두 존재한다.
- ③ 플라스틱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
- ④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 과산화물을 개시제로 쓰면 분해되면서 안정해진다.
- ⑤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 중 하나의 결합 세기는 나머지 하나의 결합 세기보다 크다.

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 ②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
- ③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 ④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한다.
- ⑤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의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면서 사슬의 성장 과정을 이어 간다.

1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와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폴리에틸렌은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중합되어 사슬이 여기저기 가지를 친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은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한편 특수한 촉매를 사용하여 저온에서 중합되면 탄소 원자들이 이루는 사슬이 한 줄로 쪽 이어진 직선형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직선형 구조의 사슬들은 한 방향으로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될 수 있다.

- ① 충격에 잘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려면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 ②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 하려면 포장재로는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 ③ 보편 용기에서 화학 물질이 닿는 부분에는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를 쓰는 것이 좋겠군.
- ④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더 높겠군.
- ⑤ 열에 잘 견디게 하려면 ㉣보다 ㉢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11.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요즘 신도시는 아파트가 대규모로 서로 접해 있다.
- ② 그는 자신의 수상 소식을 오늘에야 접하게 되었다.
- ③ 나는 교피서에서 접한 시를 모두 외웠다.
- ④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다.
- ⑤ 우리 집은 공원을 접하고 있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침침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 어내면 보이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 ㉠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 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속토록 창문은 모과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뭇 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 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 후루룩 후루룩 처마 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받든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 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 -

\* 허방다리 :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 풀 등을 덮어 위장한 구덩이.

(나)

내 어린 날!  
이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박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이슬풀하다\*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오! 흰 연 그새에 높이  
㉢ 아실아실\* 떠 놀다 내 어린 날!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 희끗희끗한 실날이 서러워  
아침저녁 나무 밑에 울다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뉘 담고  
㉤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욱  
자욱마다 눈물이 고이었는데

- 김영랑, 「연 1」 -

\* 이슬풀하다 : '아슬푸레하다'의 방언.  
\* 조매롭고 : '조마롭다'의 방언. 보기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 아실아실 : '아슬아슬'의 방언.

(다)

㉠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 하고 ㉡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이라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썩 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 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文瀾)'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 대는 저를 위해 이 집의 기문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 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 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 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 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이 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 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랴오.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 을 것이요,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 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라 할 것이요.”

- 서영보, 「문의당기」 -

\* 문의 : 물결무늬.

22.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④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내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이다.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낮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① '침침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데서,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집'이라는 배경 설정에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난 향토적 정경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④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운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밭은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과 눈발이 치는 듯한 '밖'의 달무리 이미지가 어우러져, 노인의 고독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24.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어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슴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 ② 2연에서 '조매롭고'로 표현된 '연실'의 긴장은 3연에서 연실이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의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 ③ 3연에서 '올다'의 반복과 4연에서 '눈물이 고이었던다'를 통해 '내 어린 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냇'은 '붉은 발자욱'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는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1연과 4연의 '내 어린 날'은 2연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을 표상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아주 짧은 순간에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시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 ② ㉡ :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인 실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 외롭고 슬픈 어린 시절의 정서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2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으로 사고를 전환한다.
- ② ㉠가 '자기 집'을 '문의'라고 한 것에 ㉢가 동의한 이유는 ㉠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기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③ ㉢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 ④ ㉢가 ㉠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 ⑤ ㉢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가 '물을 보는 법'을 '써 볼 데가 없'다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은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숨어 있는 두 공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군.
- ② (가)의 '무우'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어 밤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다양한 음식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군.
- ③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④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⑤ (가)의 '창문은 모과빛'과 '기린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어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고 있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가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 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네가 일규를 어떻게 아냐? 내간 게 뭘 안다구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너무나 돌연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기범이 것처럼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희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냐?"

①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놈이 아깝다구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판을 찾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구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걸어차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중략)

"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구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처음엔 **저두**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②더구나 **이리루 들어오시자** 머리를 **깎구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그러나 오래 피시구 살다 보니 **저대루**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소?"

"과거 얘기는 좀체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케번** 같지만 그분은 남하구 다른 ③묘한 철학을 지니구 계셨습니다."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소?"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④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의 온갖 기행과 케번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헌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구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구** 이리루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랍니까,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구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구만 부르셨습니다."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⑤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⑥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두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지껄었던 과거의 ⑦요설들이 생각난다. 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위(同位) 동질(同質)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와 오일규가 맞부딪쳤을 때 오일규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

28.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판명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 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29.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돌연한 웃음을 보이다가 눈물을 보이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 ② ㉡ :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외모가 의심을 가중했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 ③ ㉢ :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이다.
- ④ ㉣ :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 ⑤ ㉤ :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한 우호적인 해석이다.

3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에 기여한다.
- ② ㉠에 대한 얘기를 '나'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를 풀 목적에서이다.
- ③ '저'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 ④ '저'가 ㉠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면, '나'는 ㉡에 의해 기범을 이해한다.
- ⑤ '저'는 기범이 선행을 베풀며 보인 변화가 ㉡에서 ㉠로 변화된 과정과 일치함을 알고 있다.

31.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약사」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①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일시하려던 상대의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이 컸다는 것이겠군.
- ②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걷어차'던 일규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기범의 진술은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겠군.
- ③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을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일규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 위안을 얻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④ 일규의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이는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겠군.
- ⑤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하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해구를 일른 나서 오류도를 뒤 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이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접이 구름 밖에 별 만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신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A]

(중략)

날이 마침 극열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었디어서 말썽을 여쭙으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곡배하고 사퇴하니 천은이 망극하다  
더위를 장히 먹어 막힐 듯하는지라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하네  
여드레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앓았구나  
사당에 현알하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손주 안고 어르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

[B]

[C]

- 김인겸, 「일동장유가」 -

(나)

꼬아 자란 층석류\*요 틀어 지은 고사매\*라  
삼봉 괴석에 달린 술이 늙었으니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제1수>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  
어디서 초동과 목수(牧叟)는 웃고 가리키나니

<제6수>

맑은 물에 버를 갈고 청산에 설을 친 후  
서림 풍우에 소 먹여 돌아오니  
두어라 야인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제9수>

- 유박, 「화암구곡」 -

\* 층석류 : 석류나무로 만든 분재.

\* 고사매 : 매화를 고목에 접붙인 분재.

32. (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해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33.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접에 의지해, 떠나온 곳을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 출항 후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②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③ [C]에서는 감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④ [A]에서는 포구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었드려 있는 일을 힘겨워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협이, [C]에서는 과거의 위협했던 경험에 대한 소회가 드러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를 드러냈다.

- ①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대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군.
- ② (나)는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라고 하여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군.
- ③ (가)는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 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군.
- ④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⑤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는 양류풍에 감응하며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는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 소제가 남북을 벗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금로에 향을 사르며 시랑의 영위 먼저 차린 후 제문을 읽으니,  
㉠ 그 글에 하였으며,

‘유세차 기축 삼월 정묘 삭 십오 일에 기주 장 한림의 딸 애황은 감히 이부 시랑 이 공 영위 앞에 아뢰나이다. 오호 애제라! 소첩의 부친이 대인과 사귀어 길사옵더니,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부친은 소첩을 얻으시니 피차에 동년 동일생이라.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같이 맺었더니, 슬프다. 양가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섬에 유배 가시고,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앓일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에 **세상을 버리**시니,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하시니,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간적 왕희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옵기로 번복 도주하였다가, 남자로 행세하여 용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룬은, 적자 왕희를 없이하여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사신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 하니, 반드시 수중고혼이 되신지라. 어찌 참통치 않으리었고, 이에 한 잔 술을 바치옵나니 삼가 바라건대 존령은 흥향하옵소서.’  
하였더라.

(중략)

각설. 이 공자 대봉이 부친을 모시고 ㉡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 **황성**에 올라와 머물 곳을 정한 후, 흉노의 머리 벤 것을 봉하여 성상께 올릴새 상소를 지어 진후사연을 주달하였거늘, 이때 성상이 이 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시고 장 소제의 앞길을 애련히 여기사 마음에 잊지 못하시더니, 또 장 소제의 상표가 이르렀거늘 상이 반기사 급히 열어 보시니 알,

‘신첩 장애황은 일장 표를 용담 하에 올리나이다. 신첩이 성상의 큰 은혜를 받자와 바닷가에서 제를 올려 고혼을 위로하오나, 이승과 저승이 판이하게 달라 영혼이 자취가 없사오니, 비록 앞에 와 흥향하온들 어찌 알 리 있사오리잇가. 아득한 경성과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와 제를 지내며 통곡하옵더니, 천우 신조화와 삭발 승려를 만나오니 이 곧 시랑 이익의 처 양씨라. 비록 **성혼 행례**는 아니 하였사오나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잇가. 일비일회하여 즐겁기 무궁하오니, 이는 다 성상의 넓으신 덕택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나 왕희 부자는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간신이옵고 신첩의 원수라. 바라건대 폐하는 왕희 부자를 엄형 국문하사 국법을 밝히시고, 그 부자를 신첩에게 내어 주시면 남선우 배던 칼로 난신을 죽여 이익의 부자에게 제하여 영혼을 위로하리이다.’  
하였더라.

상이 다 보신 후 정히 처결코자 하시더니, 이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오거늘, 상이 의괴하여 열어 보시니 ㉣ **그 소**에 하였으며,

‘죄신 이대봉은 황궁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며 한 장 표문을 황상 용담 하에 바치옵나이다. 신의 부자가 간신 왕희의 모함을 입었사오나,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이 한목숨에 너그러움을 베풀어 ㉤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유배지로 가옵더니, 도중을 향하와 배를 타고 대해 중에 행하옵더니, 뜻밖에 뱃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버리를 결박하여 물에 던지거늘, 신의 아버 죽는 양을 보고 또한 뒤를 따라 수중에 빠지오매 거의 죽게 되었삽더니, 마침 서해 용왕의 구함을 입어 살아나 서역 천축국 ㉥ **백운암**에 가 팔 년을 의탁하였나이다. 생각하옵건대 신의 부자가 국가의 죄인이라. 타처에 오래 있사옵이 옳지 않아 세상에 나와 수중에 빠진 아버 유골이나마 찾고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하와 중원으로 돌아가옵다가,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감옷과 투구를 얻고, 사평에서 오추마를 얻으며, 화흥도에서 관 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어, 황성으로 향코자 하옵다가, 반적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가 ㉦ **금릉**으로 행하셨다 함을 듣고, 분심을 이기지 못하와 전죄를 무릅쓰고 천 리를 달려와 금릉에 이르러 자칭 충의장군이라 하옵고 필마단창으로 적군을 파하고 적장 목특납과 동돌수를 베어 성상의 급하심을 구하옵고, 흉노가 도망하는 것을 따라 서릉도에 들어가 흉노를 베었나이다. 돌아오는 길에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 나흘 밤낮을 정처 없이 가다가 천우신조하옵고, 성상의 하해지덕으로 무인절도에 다다라 바람이 그치오며, 그 섬에 올라가 죽었던 아버를 만났사오니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히 함께 와 대죄하옵나니, 신의 부자의 죄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왕희는 국가의 난신적자요 신의 원수라. 뱃사람이 재물 없이 적소로 가는 죄수를 무단히 살해하올 일은 만무하온즉, 이는 반드시 왕희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바 없는지라 바라옵건대 성상은 엄형 국문하옵신 후 왕적을 내어 주시고 신의 죄를 다스리옵소서.’  
하였더라.

- 작자 미상, 『이대봉전』 -

\* 진진지연(秦晉之緣) : 혼인의 인연.

1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대봉이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감옷과 칼을 얻은 공간이다.
- ② ㉡은 흉노가 침범한 곳이자 이대봉이 흉노를 처단한 공간이다.
- ③ ㉢은 장 한림 부부가 간신의 모해로 유배 간 공간이다.
- ④ ㉣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 ⑤ ㉤은 동돌수가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공간이다.

19. <장 소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친과 이 시량이 '진진지연'을 맺은 데에는 신기한 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 ② 이 시량이 '간신의 모해'를 입은 것은 시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③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은 혼약이 어그러진 것파 이 시량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여겼다.
- ④ 왕희가 '혼인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번복 도주했다.
- ⑤ '성혼 행례'는 하지 않았으나, 승려가 된 양씨를 시어머니로 대했다.

20.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 고전 소설에서는 제문, 표문 등과 같은 다양한 글이 활용되기도 해요. 윗글의 ㉠와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과 받는 상대가 누구인지 고려하여, 글의 특징이나 기능에 대해 말해 보세요.

학 생 : \_\_\_\_\_ [A] \_\_\_\_\_

선생님 : 네, 맞아요.

- ① ㉠는 망자에게 바치는 제문이고, ㉡는 성상에게 바치는 표문이에요.
- ② ㉠는 상대의 원통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는 상대에게 사건 경과를 알려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어요.
- ③ ㉠와 달리 ㉡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 ④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이 오해했던 사건의 실상이 ㉡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 ⑤ ㉠와 ㉡는 모두 글을 바치는 사람과 상대를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대봉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되고,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 또한 주인공의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한다. 공적 활약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서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치하는 이러한 구도는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한다.

- ① 장애황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고 한 데에서, 혼약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장애황이 난신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내어 달라고 한 데에서, 공적 권위를 존중하되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 수 있군.
- ③ 흥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여 이대봉이 출전한 데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이 시량과 재회한 데에서, 비현실계의 존재가 이대봉의 공적 활약에 조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이대봉이 흥노 제압을 공으로 드러낸 후 성상에게 왕희의 처벌을 요구한 데에서, 충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인물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군.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태수 설인수는 원수(元帥)를 가까이에서 모셨으며, 원수는 설인수인 줄이나 인수는 경작이 원수가 되었음을 생각지 못하더라. 원수가 아는 체하고자 하되, 군영(軍營)이 요란하여 사사로운 정을 펴지 못하였더니, 이제 번왕 남곽을 평정하고 군영이 고요한데 인수 홀로 모셨더라. 원수가 저의 물러가지 않았음을 보고 시동을 불러 당상으로 청한대, 태수 사양하여 오르지 않거늘 원수가 친히 이끌고 가로되,

“인수 형이 능히 경모를 모르오?”

“소관(小官)이 정신이 밝지 못하고, 일찍 면식이 없으니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원수가 잠소(潛笑) 왈,

“형이 과연 눈이 무디다 하리로다. 옛날 금주에서 소 먹던 목동이었던가 양 승상의 둘째 사위가 된 이경작을 모르오?”

태수가 생각 밖이라. 깨닫지 못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소관의 동서러니, 금주를 떠난 지 벌써 십일 년이옵니다.”

“십일 년 못 보던 경작이 곧 나이니 형은 모름지기 의아치 마오.”

설 태수가 어지러운듯, 취한 듯하여 오래 말을 못 하더니 이에 자제히 보니 완연한 경작이라. 놀라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지위를 잊고 손을 잡아 급히 이르되,

“경작 형! 꿈이오? 생시오?”

원수가 웃으며 왈,

“형은 놀라지 마오.”

하고 인하여 서로 잔을 들어 유쾌히 술을 마시며 정을 펼새, 태수가 매양 원수의 대덕과 넓은 도량, 기이한 풍도를 우러렀더니 이날 자리를 나란히 하여 잔을 날리며 별회를 베풀니, 마음에 세상일을 가히 헤아리기 어려움을 탄하더라.

원수가 문왈,

“외방에 있는 지 벌써 십일 년이라. 처형은 평안하시오?”

설 태수가 답소(答笑) 왈,

“나는 비록 약한 남자이나 조강지처를 무단히 버리지 아니하니 몸이 편하여 자녀를 갖추어 두었거니와, 형은 약한 부인을 무단히 버리고 십일 년에 이르도록 한 번 편지를 부치는 일이 없었소. 이제 몸이 으뜸 벼슬로 부귀영광이 비길 곳이 없고, 어진 덕과 넓은 덕을 추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오직 빈 방의 약한 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박덕함이 심하여 장차 약한 부인이 몸을 보초치 못하게 되었으니 가장 어둡고 무심한 장부라. 나는 비록 벼슬이 낮아 형을 모시고는 있으나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이르리로다.”

하고 대소한대, 원수가 또한 웃고 왈,

“형이 어찌 괴이한 말로써 나를 조롱하오? 가장 가소롭도다. 그러하나 금주의 처가는 평안하시오?”

태수 왈,

“집안은 평안하나 형의 부인이 병이 위중하여 속수무책 조석으로 목숨을 빈다 하니 형이 비록 몸이 영귀하나 무엇이 즐거우리오?”

원수가 듣고 놀라 얼굴을 붉히며 왈,

“과연 형의 말이 옳소?”

“비록 농담이라도 어이 큰 말에 허언을 하리오?”

“목숨의 길고 짧음과 부귀빈천은 하늘에 달렸으니 인력으로 어찌 하리오?”

“형이 곧 경사(京師)\*로 가리니, 길이 금주로 지날 것이니 들러 감이 어떠하오?”

“부모 묘소가 게 있으니 들르지 아니리오?”

“어느 때에 경사로 향할 것이오?”

“백성이 어지러웠으니 서너 달 더 머물러 위로하고 가려 하오.”

“내 관아가 비록 작으나 수일 후 형을 전송하리니 벼슬이 높다고 사양하지 마오.”

원수가 소왈,

“본디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라. 주는 것을 사양할 리 있으리오? 먹는 양을 알아서 큼직이 준비하오. 내 당당히 가겠소.”

태수가 소왈,

“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술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

원수가 대소 왈,

“급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

태수가 소왈,

“내가 양식이 부족하여 풍성하지 못하니 형의 양에 차게 하려면 필연 죄를 면치 못하리니 울 적에 말춤으로 창자를 줄라매고 오오.”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고 가겠소.”

“그럴진대 아예 오지 말라 할 것이오.”

“국법이 본래 나 같은 사람을 각 도에서 영접하고 잔치하고 공경하고 관대하라 하였으니 적게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이 대소하고 설 태수 돌아와 부인 난주를 대하여 이 원수의 전후 일을 일일이 전하고 기특히 여김을 마지않으며,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난데 못내 감복하더라.

- 작자 미상, 「낙성비룡(洛城飛龍)」-

\* 경사 : 나라의 수도.

18. 위 글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A] 어진 덕과 넓은 덕을 추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오직 빈 방의 약한 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박덕함이 심하여 장차 약한 부인이 몸을 보초치 못하게 되었으니 가장 어둡고 무심한 장부라. 나는 비록 벼슬이 낮아 형을 모시고는 있으나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이르리로다.”

19. <보기>의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낙성비룡」은 조선 왕실에서 향유되었던 낙선재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영웅소설인 「소대성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 점을 지니고 있다.

- 신이한 태몽을 가지고 탄생한다.
-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생한다.
-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만난다. …………… ㉠
- 한때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을 보인다. …………… ㉡
- 장모의 구박으로 처가를 나온다. …………… ㉢
- 수련을 거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 ㉣
- 아내와 해후하여 행복하게 산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20.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처자식을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어질고 넓은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하고 있다.**
- ③ 처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④ 손윗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벼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있다.